

가장의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른 실직가정의 생활실태와 대처방식

Current Living Status and Coping Strategies of Families Headed by the Unemployed

중앙대학교 인간생활환경학과
교수 김 양희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곽인숙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윤정혜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이승미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정현숙
수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최규련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최현자

Dept. of Human Life Environment, Choongang University

Professor : Kim, Yang-Hee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ersity

Professor : Kwak, In-Sook

Dept. of Consumer, Child, &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Professor : Yoon, Jung-Hai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Lee Seung-Mi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ung, Hyun-Sook

Dept. of Home Management, Suw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oi, Kyu-Reon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oe, Hyun-Cha

〈목 차〉

I. 문제제기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논의

〈Abstract〉

Using survey data from 323 families headed by the unemploy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living status and their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job status(blue or white col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revealed that families headed by the unemployed have been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 hardship in housing and problems of family functioning as well as decreased level of living. The effects of unemployment were various depending upon the job type of head of the family. The family utilized several positive coping strategies to reduce financial hardships of the family. Discus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welfar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amilies are identified.

I. 문제제기

IMF 체제로 돌입한 이후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의 '고성장·저실업 구조'가 붕괴되고 '저성장·고실업 구조'에 처하게 되었다. 1998년의 월별 실업률을 보면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7월에 실업률이 7.6%까지 올랐다가 다소 감소의 추세를 보였으나, 11월부터 다시 상승하여 12월에는 연중 최고치인 7.9%에 달했다. 한국노동연구원(1998)이 발표한 98년 8월 이후 실업의 특징은 이전의 양상과는 달리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이 반대의 경우보다 10만명 정도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실업자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직 활동을 단념한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업자수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실업 상황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해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겪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9).

실업문제는 개개인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구미와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며, 한 가구의 수입원이 주로 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 가장의 실직은 곧 가정 전체의 실직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것은 1998년 2/4분기 전체 실업자에 대한 가구주 실업자의 비율(46.7%)이 전년도 같은 분기(35.7%)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으며, 가구주 실업자 중 남자인 경우가 97년 2/4분기 28.3%에서 98년 2/4분기 40.9%로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입증된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실업에 의해 야기된 가정생활의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주축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98년 3/4분기의 경우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14.4%(35만원)가 감소했으며,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20%가 줄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소비지출도 98년 3/4분기에는 전년도에 비해 16.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99).

가장의 실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의 위기를 초래하는 외부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력 상실이 가족에 미친 영향은 가족이 속한 계층이나 가족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 사회적 지원의 형태나 내용,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성, 대처전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된다(Elder et al., 1992; Liker & Elder, 1983; Moen et al., 1983; Voydanoff, 1990).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난 도시 노숙자들, 부부관계의 악화와 이로 인한 이혼의 증가, 벼려지는 아이들, 가족원의 가출 등의 현상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의 해체는 곧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된다 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실직자의 생계지원,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및 재취업 알선, 그리고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김양희 외, 1998),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실직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백종만, 1998; 한겨레신문, 1998년 11월 26일).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과 민간단체의 활동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는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실직자 가정의 개별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실업의 영향은 가족원 개개인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직자와 그 가족의 실업에 대한 태도나 적응력과 결속도, 사회적·가족적 지지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정현숙, 1998).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업정책은 가정의 개별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가정은 실업의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특히 실직전의 직업유형은 그 가정의 생활패턴 및 자원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직후 가족의 적응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라 경제위기와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한 가족 및 개인의

적응력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 된 지원체계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실직가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정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실직가정의 생활실태와 대처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이 실직한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1) 가장의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라 실직후 가정생활의 변화와 어려움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2) 가장의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라 실직극복을 위한 가정의 대처방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 분석하여, 직업유형에 따라 차별화 된 실직가정의 복지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인천, 울산 지역의 실직자 840명이다. 조사 지역인 세 지역은 공단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사무관리직 외에 생산/단순노무직 실직자도 포함할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판단에 의해 선정되었다.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 까지 지역 공무원이 구청의 구직 정보 센터에 구직신청이나 정보를 얻으러 오는 실직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840부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그 중에서 배우자가 있으며 남편이 실직한 323가정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질문지는 실직가정의 일반적 특성 외에 실직이후 가정생활의 변화와 어려움 및 실직극복을 위한 대처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주요 독립변인인 직업유형은 남편의 실직전 직업에 따라 생산/단순노무직과 사무관리직의 두 범주로 구분하였다. 실직이후 가정생활의 변화와 어려움은 경제생활, 주거생활, 가족생활의 세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생활의 변화와 어려움 중에서 실직전·후의 가정경제상태의 변화는 여섯 문항(5점 리커트 척도)으로 측정하였으며, 실직전·후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생계비, 자녀교육비 등 여섯 범주에 대해 1, 2, 3 순위의 다응답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순위로 응답된 문제만을 분석하였다.

주거생활의 어려움은 주택관련 부채상환부담 등

여덟 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생활의 변화와 어려움 중에서 IMF 이후 가족생활과 삶에 대한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가족생활의 변화는 부인 취업 등 다섯 문항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족의 변화는 부부관련문제(10문항), 자녀관련문제(5문항), 가족관련문제(4문항), 친척관련문제(4문항), 남편의 가정일 활동참여 정도(2문항)를 묻는 총 25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실직극복을 위한 대처방법은 실직극복을 위한 가족의 소득감소 대처방법과 실직자의 대처방법의 두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실직극복을 위한 가족의 소득감소 대처방법은 '생활비를 줄임' 등 아홉 범주에 대해 다용답 문항으로 구성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실직자의 대처방법은 긍정적 대처, 부정적 대처, 구직활동의 세 측면으로 측정하였다. 긍정적 대처는 '취미생활하기', '가사돌보기'의 2 문

항이며, 부정적 대처는 '다른 사람에게 화내기', '무위도식하기', '술담배하기'의 3 문항이며, 구직활동은 '일자리 찾기', '직업훈련참여', '아르바이트하기', '공공근로사업 참가'의 4문항으로 총 9문항에 대해 실행할 경우 각 문항마다 2점씩 주었다. 실직자의 자아존중감은 단일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기초통계자료로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χ^2 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실직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이하, 40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3)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실직자 연령	30대 이하	99(30.8)	배우자 연령	30대 이하	106 (33.1)
	40대	95(29.6)		40대	103 (32.2)
	50대 이상	129(39.6)		50대 이상	114 (34.7)
실직자 학력	중졸이하	131(42.5)	배우자 학력	중졸이하	128(42.7)
	고졸	129(39.9)		고졸	123(38.1)
	대졸이상	59(18.2)		대졸이상	52(18.1)
동거가족 형태	핵가족	280(87.0)	결혼상태	초혼	308(95.4)
	확대가족	43(13.0)		재혼	15(4.6)
주택소유 형태	자택	163(51.1)	자녀수	0	14(4.4)
	전세	90(28.2)		1	52(16.5)
	월세	66(8.1)		2	152(48.1)
실직이유	회사의 구조조정	92(35.4)		3명 이상	105(31.0)
	직장의 휴업/폐업	98(37.7)		실직전 직업유형	생산/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월급체납	14(5.4)			215(71.7) 85(28.4)
	근로조건	15(5.8)	실직기간	6개월이내	74(29.4)
	개인사정	24(9.2)		6개월~1년	112(44.4)
	기타	17(6.5)		1년이상	66(26.2)

* 무응답 수에 의해 전체 사례수는 변수마다 차이가 있음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연령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실직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82.4%가 고졸이 하로 저학력층에 실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학력 역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들의 가족형태는 부부 혹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가 87%였으며 13%는 확대가족이였다. 조사대상 실직자 가정의 79.1%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세 가구 중 하나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 조사대상 실직가정의 절반 정도가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의 실직전 직업과 실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단순노무직이나 생산직에 종사하다가 실직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구조조정이나 직장의 휴·폐업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실직자의 26.2%는 1년이상 실직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실업이 장기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가장의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른 생활변화와 어려움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먼저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른 실직가계의 실적 상황적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실직자의 연령은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했던 경우 평균 연령이 48.15세로 사무관리직보다 8세 정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배우자의 연령 역시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남편이 실직전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하였던 가정의 부인이 사무관리직보다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하다 실직을 한 경우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취업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해준다. 퇴직금수령 여부도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 역시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무관리직에 종사했던 경우 약 2,950만원 정도였으나 생산/단순노무직의 경우는 약 절반 수준인 1,5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저축으로 생활이 가능한 기간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생산/단순노무직의 경우는 7.8개월, 사무관리직의 경우는 16.7개월 정도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서 언급한 실직기간에 대한 분석결과와 같이 고려해 볼 때 실직기간이 이미 6개월 이상 지속된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했던 가계는 이미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가계라 할지라도 금융자산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적극적인 실업 대처전략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2〉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른 실직가계의 상황적 차이분석

특 성	생산/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t 값
실직자의 연령	48.15 ^a (10.18) ^b	40.34 (10.29)	5.93**
배우자의 연령	46.90 (99.74)	39.49 (9.29)	6.20**
퇴직금의 액수(만원)	1500.36 (1732.60)	2949.35 (4755.92)	-1.94*
보유금융자산이용 생활가능기간(월)	7.80 (13.20)	16.68 (19.92)	-4.32**
퇴직금 수령여부	수령 10명(23.3%) 미수령 162명(75.3%)	수령 88명(56.5%) 미수령 36명(42.4%)	$\chi^2=30.59^{**}$ ($df=1$)

* p<.05 ** p<.001 a: 평균 b: 표준편차

〈표 3〉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른 가계경제상태의 변화

경제적 직업 특성 유형	구 分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생활비	저 축	부 채	빈도 (%)
							금융자산
생산/단순노 무직	현저히 증가	2(0.9)	0(0.0)	6(2.9)	0(0.0)	33(19.5)	1(0.6)
	다소증가	0(0.0)	1(0.5)	0(0.0)	0(0.0)	61(36.1)	3(1.8)
	변화없음	3(1.4)	67(35.3)	11(5.3)	20(10.8)	59(34.9)	60(36.8)
	다소감소	24(11.4)	25(13.2)	58(28.0)	24(13.0)	6(3.6)	26(16.0)
	현저히 감소	182(86.3)	97(51.1)	132(63.8)	141(76.2)	10(5.9)	73(44.8)
사무 관리직	현저히 증가	0(0.0)	0(0.0)	0(0.0)	0(0.0)	12(16.2)	0(0.0)
	다소증가	0(0.0)	1(1.3)	5(6.0)	1(1.2)	29(39.2)	6(8.3)
	변화없음	4(4.8)	27(35.5)	2(2.4)	7(8.5)	26(35.1)	17(23.6)
	다소감소	12(14.3)	13(17.1)	45(53.6)	15(18.3)	3(4.1)	24(33.3)
	현저히 감소	68(81.0)	35(46.1)	32(38.1)	59(72.0)	4(5.4)	25(34.7)
Total	현저히 증가	2(0.7)	0(0.0)	6(2.1)	0(0.0)	45(18.5)	1(0.4)
	다소증가	0(0.0)	2(0.8)	5(1.7)	1(0.4)	90(37.0)	9(3.8)
	변화없음	7(2.4)	94(35.3)	13(4.5)	27(10.1)	85(35.0)	77(32.8)
	다소감소	36(12.2)	38(14.3)	103(35.4)	39(14.6)	9(3.7)	50(21.3)
	현저히 감소	250(84.7)	132(49.6)	164(56.4)	200(74.9)	14(5.8)	98(41.7)
x ² 값		4.238	1.317	33.917**	3.785	0.497	16.899*

* p<.01 ** p<.001

2. 실직 이후 가정생활의 변화와 어려움

1) 경제생활의 변화와 어려움

남편의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라 실직 전·후 가정경제상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 실직가계의 96.9%가 가구주 근로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63.9%의 가계는 배우자의 근로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의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실업으로 인한 생활비의 변화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실직 전에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한 가계가 사무관리직에 종사한 가계에 비해 현저하게 생활비가 감소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관리직에 종사했던 가계의 경우 응답가계의 53.6%가 생활비가 약간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생산기술직은 63.8%의 응답가계가 생활비의 현저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표 2〉에서 지적되었던 두 집단의 자산보유정도와 퇴직금의 수령여부 및 수령액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나 기타 용도로 사용한 가계도 상당하여 전체가계의 63%가 실직 후에 금융자산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실직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자산의 변화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한 가계가 금융자산의 감소를 경험한 가계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비감소가 더욱 큰 것은 보유 금융자산수준이 사무관리직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음을 시사한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이들 가계의 저축여력을 감소시켜 전체가계의 89.5%가 저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의 지속적인 저축행동의 부재는 향후 실직상태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경제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부채액의 변화를 보면 전체가계의 1/3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37%는 약간 증가하였고 18.5%는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절반 이상의 가계가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부채를 이미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장이 실직한 경우 가계는 경제생활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실직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실직가계가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문제와 향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문제를 직업유형 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현재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로 생계비 문제를 지적한 가계가 가장 많았으며(66.1%) 다음으로 자녀교육비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무관리직에 종사했던 가계는 차입금 및 이자상환 문제를 들었으며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했던 가계는 주거비용부담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경제문제에서도 대부분의 가계가 생계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직업유형에 관계없이 자녀교육비, 차입금 및 이자상환, 그리고 주거비용부담의 순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생활의 어려움

<표 5>는 최근 실직으로 인한 주택과 관련된 사항의 부담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항목은 주택유지관리비의 부담으로 평균 3.48 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택세금에 대한 부담, 주택부채상환에 대한 부담, 주택이자부담으로 나타나 실직되기 전 주택의 구입을 위해 융자를 받았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택부채상환부담과 이웃환경의 질적저하에 대한 부담은 생산·단순노무직이 사무관리직보다($t=2.03$, $p<.05$) 높아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주거분야에서도 생산·단순노무직 가장의 실직가족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과 관련된 다른 분야는 직업 유형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차이가 없었다.

3) 가족생활의 변화와 어려움

실직자 가정에서 치각한 가족생활과 삶의 변화는 매우 나빠지거나 다소 나빠졌다는 응답이 91.6%를 차지하였고 평균 1.58로 삶에 대해 매우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실직 전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실직 이후 가족생활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 치각은 모든 실직가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른 현재와 향후 가계경제 문제의 빈도와 백분율

경제문제유형	현재경제문제			향후경제문제		
	생산/단순 노무직	사무관리직	전체	생산/단순 노무직	사무관리직	전체
생계비	148(69.2)	49(58.3)	197(66.1)	14769.0	51(60.7)	198(66.7)
자녀교육비	40(18.7)	19(22.6)	59(19.8)	35(16.4)	22(26.2)	57(19.2)
주거비용부담	11(5.1)	6(7.1)	17(5.7)	9(4.2)	3(3.6)	12(4.0)
의료비	4(1.9)	0(0.0)	4(1.3)	7(3.3)	0(0.0)	7(2.4)
차입금 및 이자상환	9(4.2)	9(10.7)	18(6.0)	14(6.6)	8(9.5)	22(7.4)
세금 및 공과금 체납	2(0.9)	1(1.2)	3(1.0)	1(0.5)	0(0.0)	1(0.3)
χ^2 값	7.80 (df=5)			7.54 (df=5)		

〈표 5〉 주택과 관련된 사항의 부담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주택관련사항	전체평균	생산/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t 값
주택부채상환부담	3.32	3.47 (1.48)	3.05 (1.58)	2.03*
주택이자부담	3.26	3.34 (1.48)	3.05 (1.58)	1.43
주택세금부담	3.36	3.42 (1.43)	3.20 (1.31)	1.22
주택유지관리비 부담	3.48	3.56 (1.26)	3.38 (1.17)	1.05
공간축소의 어려움	2.95	3.04 (1.25)	2.74 (1.27)	1.75
출퇴근의 어려움	2.70	2.78 (1.16)	2.56 (1.25)	1.28
이웃환경 질적저하	2.68	2.80 (1.20)	2.46 (1.14)	2.16*
주택설비 질적저하	2.88	2.97 (1.22)	2.76 (1.21)	1.28

* p<.05

〈표 6〉 실직전 직업유형별 가족생활과 삶에 대한 평가 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수	전체	생산/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t 값
가족생활과 삶에 대한 평가	1.58 (0.68)	1.53 (0.65)	1.68 (0.68)	-1.87

〈표 7〉 실직전 직업유형별 가족의 변화와 어려움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수	전체	전체평균**	생산/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t 값
부부관련 문제	30.02 (6.77)	3.00	30.28 (7.08)	29.40 (6.35)	.97
자녀관련 문제	13.27 (4.95)	2.65	13.55 (5.10)	12.22 (4.64)	1.97*
가족전체관련 문제	11.61 (3.56)	2.90	11.82 (3.65)	10.82 (3.37)	2.13*
친척관련 문제	11.78 (3.54)	2.95	11.70 (3.84)	11.67 (2.89)	.06
남편의 가사일활동	5.53 (2.12)	2.77	5.38 (2.14)	5.86 (2.06)	-1.69

* p<.05 ** 전체점수를 문항의 수로 나눈 평균값

남편의 실직 후 가족에 일어난 변화와 어려움에 대하여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족의 변화 중에서 부부관련 변화나 어려움이 가장 많으며, 친척관련 문제(2.95), 가족전체관련 문제(2.90), 자녀관련문제 발생(2.65), 남편의 가사일 활동의 증가(2.77)의 순서이다.

이를 남편의 실직 전 직업유형별로 분석하면 생산/단순노무직 실직자 가정에서 사무관리직 실직자 가정에 비해 자녀관련 문제와 전체가족관련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생산/단순노무직 실직자들이 사무관리직 실직자들보다 부부관련문제나 친척관련문

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가정참여 활동은 더 적은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남편의 실직 전 직업유형별로 가정폭력 발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발생빈도는 사무관리직보다 생산/단순노무직 가정에서 약간 더 많은 경향을 보이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폭력대상의 경우도 〈표 9〉와 같이 전반적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나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은 직업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며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

〈표 8〉 남편의 실직전 직업유형별 가정폭력빈도 차이의 빈도와 백분율

가정폭력빈도	생산/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전체
없음	145 (73.2)	61 (78.2)	206 (74.6)
1년 1-2회	22 (11.1)	6 (7.7)	28 (10.1)
3개월 1회	15 (7.6)	4 (5.1)	19 (6.9)
1개월 1-2회이상	16 (8.1)	7 (9.0)	23 (8.3)
계	198 (100.0)	78 (100.0)	276 (100.0)
χ^2 값		1.37 (df = 3)	

〈표 9〉 남편의 실직전 직업유형별 가정폭력 관련자 차이의 빈도와 백분율

가정폭력 관련자	생산/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전체
남편→아내	42 (77.8)	14 (82.4)	56 (78.9)
아내→남편	5 (9.3)	0 (0.0)	5 (7.0)
부모→자녀, 형→제	7 (13.0)	3 (17.6)	10 (14.1)
계	54 (100.0)	17 (100.0)	71 (100.0)
χ^2 값		1.81 (df = 2)	

〈표 10〉 남편의 실직전 직업유형별 가정폭력 형태 차이의 빈도와 백분율

가정폭력 형태	생산/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전체
욕설, 물건던지기	44 (80.0)	12 (75.0)	56 (78.9)
손발사용한 구타	5 (9.1)	4 (25.0)	9 (12.7)
몽둥이, 도구사용구타	6 (10.9)	0 (0.0)	6 (8.5)
계	55 (100.0)	78 (100.0)	71 (100.0)
χ^2 값		1.37 (df = 3)	

함을 알 수 있다.

폭력형태를 분석한 〈표 10〉에 의하면 실직자 가정의 경우 직업유형에 상관없이 욕설이나 물건던지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 손발을 사용한 구타도 발생하고 있다. 생산/단순노무직의 경우 몽둥이나 도구를 사용한 구타도 10.9% 나타나 폭력 양상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3. 남편의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른 실직극복을 위한 대처방법

1) 직업유형에 따른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대처방법

실직가계가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처방식은 직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전체 응답가계의 84.3%가 생활비를 줄임으로서 소득감소에 대처하고 있었으며, 두 직업유형에 따른 집단

〈표 11〉 직업유형에 따른 소득감소 대처방법의 빈도와 백분율

직업유형 대처방법		생산/단순 노무직	사무관리직	전체	χ^2 값
저축을 줄임	예 아니오	66(30.7) 149(69.3)	34(40.0) 51(60.0)	100(33.3) 200(66.7)	2.37
생활비를 줄임	예 아니오	174(80.9) 40(18.6)	79(92.9) 6(7.1)	253(84.3) 46(15.3)	6.73*
부채이용	예 아니오	46(21.5) 165(77.1)	13(15.3) 71(85.3)	59(19.7) 236(78.9)	5.21
적금/보험해약	예 아니오	82(38.1) 133(61.9)	38(44.7) 46(54.1)	120(40.0) 179(59.7)	3.80
퇴직금사용	예 아니오	28(13.0) 185(86.0)	25(29.4) 59(69.4)	53(17.7) 244(81.3)	14.65**
집규모나 전세줄임	예 아니오	35(16.3) 180(83.7)	13(15.3) 71(83.5)	48(16.0) 251(83.7)	2.57
배우자 및 기타 가족원의 취업	예 아니오	36(16.7) 177(82.3)	13(15.3) 71(83.5)	49(16.3) 248(82.7)	3.41
자동차, 귀금속 등 보유동산 처분	예 아니오	28(13.0) 185(86.0)	14(16.5) 70(82.4)	42(14.0) 255(85.0)	3.94

** p<.01 * p<.05

〈표 12〉 남편의 실직전 직업유형별 대처방법의 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 검증결과

대처방법	전체	생산/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t 값
긍정적 대처	3.42 (0.70)	3.43 (0.68)	3.22 (0.75)	2.30*
부정적 대처	5.06 (0.97)	5.07 (1.02)	5.04 (0.88)	.24
구직활동	7.92 (1.15)	7.93 (1.12)	7.89 (1.21)	.24

1* p<.05

간에 차이를 보여 특히 사무관리직에 종사했던 가계가 생활비삭감을 통해 소득감소에 대처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가계로 전체 응답가구의 2/3가 저축을 줄임으로서 소득감소에 대처하고 있었으며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저축을 줄이는 방법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은 적금 혹은 보험을 해약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가계의 40%가 이를 통해 소득감소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전 사무관리직에 종사했던 경우(29.4%) 특히 퇴직금을 이용하는 가계가 생산/단순노무직 종사가계(13.0%)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했던 가계의 경우 실직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가 훨씬 적어 퇴직금을 이용하기 보다는 부채를 이용하여 소득감소에 대처하고 있었으며 전체 생산/단순노무직가계의 21.5%가 부채이용을 통해 소득감소에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집규모나 전세를 줄임으로서 소득감

소에 대처하는 가계도 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기간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실직자의 대처방법

실직자 남편의 실직 전 직업유형별 대처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즉 생산/단순노무직 실직자들이 사무관리직 출신에 비해 긍정적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부정적 대처방법 사용이나 구직활동에서는 직업유형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실직가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정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차별화된 실직가정의 복지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라 실직가정의 생활실태와 대처방식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몇가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라 실직가계의 경제적인 상태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가정은 보유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다. 금융자산의 변화는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한 가계가 금융자산의 감소를 경험한 가계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비감소가 더욱 큰 것은 보유 금융자산수준이 사무관리직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실직이 장기화 될 경우 보유 금융자산을 이용해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사무관리직의 경우는 16.7개월 정도인데 비해 생산/단순노무직의 경우는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실직자의 연령도 상대적으로 고령층으로 재취업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소득감소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취하는 행동이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었으며, 두 직업유형에 따른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 특히 사무관리직에 종사했던 가계가 생활비삭감을 통해 소득감소에 대처하

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생산/단순노무직의 경우 생활수준이 이미 최저수준에 도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며 이들 두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실직으로 인한 주택과 관련된 사항의 부담 정도는 주택유지관리비의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세금에 대한 부담, 주택부채상환에 대한 부담, 주택이자부담 순으로 나타나 실직되기 전 주택 구입을 위해 읍자를 받았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채상환부담과 이웃환경의 질적 저하에 대한 부담의 경우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하였던 가정이 사무관리직의 경우보다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 가족을 위한 주택관련 지원금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 처한 가족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미래의 정책에서는 실직가정에 대하여 부채상환의 기일 연기나 이자율의 신축적 적용, 주택관련세금(재산세)의 신축적 적용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주택유지관리비나 임차료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남편의 실직 후 가족생활과 삶에 대한 평가는 남편의 실직 전 직업유형에 관계없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가족생활 영역별 변화와 문제를 분석한 결과 부부관련 변화와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사무관리직 가정에 비해 생산/단순노무직 가정에서 자녀관련 변화와 문제, 가족전체관련 변화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생산/단순노무직 실직자 가정이 사무관리직 실직자가정에 비해 전반적으로 문제발생 소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이나 능력이 적기 때문에 추론된다. 이중에서 부부관련문제나 친척관련문제, 남편의 가사참여활동에서 직업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타나나는 결과로, 가족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실직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포함되는 부부관련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연구 대상자들의 실직기간과 직업 유

형 및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직은 더 많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한 가족관계에서의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적 안정망으로서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단합과 정서적 지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실직 기간에 따른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중단적인 연구설계가 추후연구에서 요구된다.

넷째, 남편의 실직 후 가정폭력의 빈도, 폭력관련자, 폭력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실직가정 모두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있으며, 몽둥이나 도구를 사용한 폭력이 더 많았으나,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남편의 실직 전 직업유형에 따라 가정폭력의 차이가 없는 결과에 대해 몇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표집수가 적어서 직업유형 별로 가정폭력 사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폭력을 측정하는 질문에 대해 오답하거나 누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보다는 우리 나라 실직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빈도, 관련자, 형태들이 남편의 직업 유형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다섯째, 실직자의 대처방법은 실직 전에 생산/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였던 실직자들이 사무관리적 실직자들에 비해 긍정적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부정적 대처방법과 구직활동에서는 직업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생산/단순노무직 실직자들이 사무관리적 실직자에 비해 실업과 유사한 상황에 접해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적용에도 익숙하여 적용에 도움되는 방법인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 대처방법이나 구직활동은 실직 전의 직업유형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물론 노숙하는 실직자나 상담치료를 요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배우자가 있는 실직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변인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심층적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양희 외 7인(1998). 실직자가정의 위기극복전략 및 가정복지 지원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백종만(1998).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실업극복”. 「실직가정 겨울나기와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실업극복국민운동 주최.
- 정현숙(1998). “실직자가정의 실태와 지원요구도”. 「실직자 가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정복지 지원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4차 학술대회 논문집.
- 한겨레신문. 1998년 11월 26일.
- 한국노동연구원(1998).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연구보고서.
- 한국여성개발원(1999).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 Elder, G. H., Conger, R. D., Foster, E. M., & Ardel, M.(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1), 5-37.
- Liker, J. K., & Elder, G. H.(1983). Economic hardship and marital relationships in the 193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343-359.
- Moen, P., Kain, E. L., & Elder, G. H. Jr. (1983). Economic conditions and family life: Contemporary and historical perspectives. In Nelson, R. & Skidmore, F.(Eds.). *American families and the econom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 -1115.